

지역 소식 통

정읍시보건소, 불임 위험자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정읍시가 의학적 치료로 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을 위해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 보건소는 항암제 투여, 난소 절제술, 고환 적출술, 염색체 이상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적인 불임이 우려되는 시민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본인 부담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무관 치료 과정에서 가임력 저하가 예상되는 시민으로, 치료 전 생식세포 보존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체외수정 시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이며, 본인 부담액의 50%를 지원한다. 남성은 최대 30만원, 여성은 최대 200만원까지 1회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상하농원 등
‘위케어션 개소식’ 열어

고창군에 주4일제 본격화 등 휴가근무여건 변화에 최적화된 위케어션이 만들어졌다.

2일 고창군과 상하농원 등에 따르면 전날(1일) 오후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 앞에서 ‘위케어션 개소식’이 열렸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권태훈 상하농원 대표, 기관·사회단체장 등 80여명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상하농원 위케어션 공간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위케어션 활성화 공모사업’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만들어졌다.

총사업비 3억원(국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기존 노후 컨테이너를 리모델링하여 원격근무가 가능한 회의실과 휴게공간 등으로 탈바꿈시켰다.

위케어션은 일(work)과 휴식(vacation)을 결합한 새로운 근무 방식이다.

/고창=김영식기자

터미널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 공개

고창군, 교통편의 · 청소년소통 공간 융합... 혁신적 랜드마크 조성

전북 고창군 한 중심에 교통편의와 청년소통 공간을 융합한 명품 랜드마크가 들어선다. 도시의 관문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었던 터미널의 대변신에 모두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터미널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사업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외부에 공개했다. 당선작은 명쾌한 동선계획과 공간구성, 도시활력 거점으로서의 상징성 확보, 건축물 용도에 맞는 생동하는 공간들로 표현되며 눈길을 사로 잡았다.

새로운 터미널 1층에는 버스승강장과 대합실, 2층에는 판매시설과 각종 식당들이 자리하고, 3층에는 청년문화공간과 기업체들의 회의실, 4층에는 소규모컨벤션 시설이, 5층과 옥



고창군 신터미널 조감도

상에는 주차장이 들어선다. 동시에 맞은편 주차장 부지에는 한 국토주택공사(KH)가 21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급면적도 다양화(36㎡(16평), 46㎡(20평), 55㎡(23평), 84㎡(32

평)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2층의 건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핫플레이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는 2022년 12월 군 단위에선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국가사업지구다. 사업비는 1777억원으로, 고창군이 추진하는 단일사업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신 터미널은 본격적인 건축설계를 거쳐 내년 초 착공을 예정하고 있고, 이 기간 임시로 사용하게 될 터미널은 고창을 목화엑스포장과 농협하나로마트 사이에 마련돼 이달 8일부터 본격 운영을 준비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웃과 함께 채우는 공유냉장고... 정읍시, ‘나눔복지’ 실현

민선8기 출범 후 추진... 1403개 기탁처서 5여억원 상당 식품 · 기부금 모여 7만8000여세대 지원받아

정읍시의 민선8기 공약사업인 공유냉장고가 지역사회 복지 지평을 바꾸며 연대와 나눔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수성동, 내장상동, 시기동 연지동 등 4개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유냉장고를 운영 중이다. 각 냉장고는 매주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운영되며, 시민과 단체들의 자발적인 식품기부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식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10월 사업 시작 이후 지금까지 총 1403개의 기탁처가 참여해 5억 881만원 상당의 식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가운데 7만 8129세대에 약 4억 7433만원 규모의 식품이 지원됐다.

해마다 참여와 지원 규모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면, 공유냉장고는 단순한



기부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신뢰를 매개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정기기부에 기여한 4개 단체에 감사패를 수여하며 민관 협력 기반

을 강화했고,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원아들이 직접 식품을 기부하고 냉장고에 진열해보는 체험을 진행하며 나눔의 가치를 여러 세대까지 확산시켰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2025 물빛축제 프로그램 부스 운영자 7일까지 모집

정읍시가 여름 대표 축제인 ‘물빛축제’를 앞두고 먹거리와 체험 부스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7일까지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다. 부스 운영 기간은 축제가 열리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이다.

모집 분야는 △간식 부스 14개소 △푸드트럭 6개소 △주류 부스 5개소(맥

주 3, 맥걸리 2) △체험 부스 2개소 등 총 27개 팀이다. 지역민과 관광객이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자격은 정읍에 소재한 단체·업체로 제한된다. 신청은 시청 본관 4층 관광기획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ryuuuuu@koreakr)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이메일 접수 시에는 신청서

류에 서명·날인한 스캔본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운 여름밤의 추억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벚꽃축제에서도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이 큰 호응을 얻으며 약 1억 8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원한 물 한 병으로 갈증 해소

정읍시, 무더위 속 얼음생수 9곳에 3만병 비치

정읍시가 폭염특보에 대응해 시 전역 주요 지점 9곳에 얼음생수 3만 병을 비치하며 시민 건강 보호에 나섰다.

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 대응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얼음생수는 △버스승강장 △교통섬 △공원 등 시민 통행량이 많은 주요 거점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됐다.

시는 이번 조치로 갈증 해소는 물론 체온 조절과 수분 보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얼음생수 제공은 단순하지만 시민 체감도가 높은 조치로,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 외에도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 다양한



폭염 대응책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도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다각적인 행정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이라며 “누구나 시원한 물 한 병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고향사랑기금 활용 청년 주거비 지원 완료

부안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상반기 지원금을 6월 30일자로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안군 고향사랑기금 100%를 활용하여, 지역 내 주거 취약 청년들에게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또는 월세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돕고자 마련된 청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는 180% 이하)이다. 월 최대 10만 원씩 연 120만 원까지 지원되며, 해마다 신청을 받아

자격 요건을 지속 충족할 경우 최대 4년까지 연속 지원이 가능하다.

부안군은 지난 2월 참여자 공모를 통해 총 65명의 청년을 선정했고, 서류 확인을 거쳐 6월 30일자로 지급을 완료했다.

하반기 지원금은 오는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청년 주거비용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청년들이 부안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금 등 재원을 적극 활용해 청년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수산분야 보험료 1470여가 5억6천만원 지원

부안군은 관내 어가 1470세대와 어선 450척을 대상으로 총 5억6,00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분야 보험료 지급은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재해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회복과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나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어선과 어선원, 어선 조업 외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급대상이다.

군은 보험료 지급을 위해 그동안 수협중앙회로부터 수산분야 정책보험

가입실적 자료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바 있다.

또한 금액 부담이 큰 어선 보험료는 군비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부안군 수산분야 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하였다.

군 관계자는 “수산분야 보험료 지원은 어업인들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